

(주)선진

## 선진 자동급이기 전용 사료 “뉴보스 오토”와 함께 성공의 바람이 부는 목장을 만든다

- 긍정의 마인드와 젊음의 도전을 지닌 2세 경영인의 롤모델

낙농 2세 경영인다운 젊음의 패기와 긍정의 마인드로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이룬 목장이 있다. 축산전문기업 선진(총괄사장 이범권)과 아버지때부터 2세까지 파트너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바로 진하목장(사장 하광원)이다. 경남 산청군 단성에 위치한 진하목장은 착유두수 28두(전체 50두) 규모로 하광원 사장은 현재 30대 중반의 젊은 2세 낙농경영인이다. 하광원 사장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아버지인 하경조 사장으로부터 목장을 물려받아 경영 중이다.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에 하광원 사장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지의 목장을 물려 받아 시작하게 되었다.

하광원 사장은 목장을 물려받으며 효율적인 목장 경영과 개체당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방향으로 경영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한 목표의 성공을 위한 파트너를 찾던 중 아버지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선진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 선진과의 파트너관계 속에서 2014년 01월 선진에서 새롭게 출시된 ‘뉴보스 오토’ 사료에 대해 알게 되었다. 국내 조사료 실정에 최적화 된 자동 급이기 전용 사료인 선진의 ‘뉴보스 오토’ 사료를 두고 하광원 사장은 많은 고민을 하였다. 하지만 하광원 사장은 젊음의 도전정신과 선진 낙농 사료 품질에 대한 믿음과 지역부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제품을 목장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진하목장은 ‘뉴보스 오토’ 사료를 사용하기 전



왼쪽부터 선진 영남BU 축우사업부 전용진 지역부장, 진하목장 하광원 사장, 선진 대리점 김동신 과장

평균 유량 31kg로 주변 목장과 비슷한 성적을 유지했다. 하지만 선진 ‘뉴보스오토’를 급여한 이후 6개월이 지난 현재 유량은 5kg이 증가된 평균 유량 36kg로 향상되었다. 그리고 ‘뉴보스 오토’를 사용하면서 염려했던 유지율도 3.7% ~ 3.9%로 안정적으로 나온다고 했다. 하광원 사장은 “26마리의 착유우에서 980kg를 납유하는 지금, 착유우 두당 수익으로 약 16만원/월 이 향상되었다. 또한 단기적인 수익 창출인 납유량 뿐만 아니라 개별 개체 관리를 통해서 착유우의 건강상태가 좋아졌다.”라고 웃으며 이야기 했다. 그리고 “목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미흡한 점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주신 주변 목장과 선진에게 많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선진 ‘뉴보스 오토’ 사료는 주변 목장에게 추천하지 않고 저 혼자 독차지 하고 싶을 만큼 좋은 사료이다. 마지막으로 항상 부모님에게 감사하며 목장 운영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업을 이어 나갈 것이다.” 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축산전문기업 선진 마케팅실의 강정윤팀장은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진하목장과 같은 우수 목장을 더 많이 형성될 수 있도록 선진의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리고 국내 조사료 실

정에 최적화 되고 목장의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뉴보스 오토’ 사료를 적극 권장하여 낙농농가와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 대한뉴팜(주)

# 엑센트 플러스가 DH 엑센트 플러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15년 이상 국내에서 판매되어오던 대한뉴팜(주)(대표이사 : 배건우)의 엑센트 플러스가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재탄생하여 축산현장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DH 엑센트 플러스는 제 3세대 세파계 항생제인 세프티오퍼 소디움(Cefitofur sodium)을 주성분으로 그람 양성균과 음성균 모두에 감수성을 지닌 광범위한 항생제로써 소의 호흡기 질병 및 혐기성균에 의한 질병 치료, 돼지의 호흡기 질병치료, 병아리의 대장균증 등을 예방하는 강력하고 빠른 효과를 발휘하는 제품이다.

또한, DH 엑센트 플러스는 짧은 휴약기간으로 잔류문제를 최소화 하여 우유나 식육조직의 약제 잔류 걱정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제품이다.

대한뉴팜(주)의 엄격한 품질관리 시험을 통과하여 출시된 DH 엑센트 플러스는 기존 엑센트 플러



스와 동일한 “동결건조 분말” 주사제로 첫째, 뛰어난 동결건조 기술로 생산하여 역가보존이 우수하며 둘째, 물에 대한 용해성이 매우 뛰어나 사용의 편리성과 투여 후 빠른 효과를 발휘한다. 셋째, 제품의 안정성이 뛰어나 유효기간 내 균일한 역가를 유지한다.

대한뉴팜(주)에서 DH 엑센트 플러스를 출시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끼치는 세균성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CJ제일제당

## CJ제일제당, 경기 양평에서 ‘우수목장의 날’ 행사 개최

- 신항소 목장 CJS사료 교체로 305일 11,742kg, 연간 약 1억 2,000만원의 추가 수익 달성

지난 13일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웨르빌 호텔에서 50여명의 낙농 경영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CJ제일제당 우수목장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대상은 신항소 목장 (대표 김상진)으로 △착유 두수 53두 △평균 유량 35.8ℓ 로 월 평균 760,370만 원의 사료비 공제수익을 거두고 있는 우수목장이다. 또 현재 305일 기준 11,742kg를 달성 중임을 밝혀 참석한 사양가의 부러움을 샀다.

이처럼 괄목할만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것에 김상진 대표는 △CJ 밀크젠 송아지 무제한 급여 : 생후 4개월까지 제한 없이 자율 급여 △CJ BCS TOP 사료 급여 : BSC를 꾸준히 관리하여 비유 후기에 반드시 체크 △비유 피크 유지 : 100~150일경 비유 피크 지속 등으로 밝히며 앞으로 목장 최적환경을 고려한 50두 12,000kg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CJ제일제당 경기지점 전재원 부장은 ‘우수목장의 날’ 행사를 통해 향후 낙농 경영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주요 내



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황 변화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빠른 실행, 경영수익 극대화 방법, 단계별 사양관리 등에 대해 강의하며 “요즘은 비용 절감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아닌 효율적인 투자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한 시대이다. 이번 행사로 CJ제일제당 제품의 품질력을 증명하였기에, 앞으로는 국내 낙농 목장을 위한 효율적인 목장 경영전략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혀 행사에 참여한 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2014년 3월에 출시된 제품인 CJ 밀크젠은 △살아 숨쉬는 미생물 (국내 특허 출원 완료) △최고의 수익성 (유량과 유질 동시 개선) △강한 번식력 (DMI섭취 개선 및 특수에너지 공급 설계) 등이 특징인 제품으로 현장에서 행복한 목장 경영의 필수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주)팜스코

## (주) 팜스코, 서부공장 준공 30주년 기념 어울림 한마음 축제 열어

(주)팜스코 서부공장이 1984년 11월 8일 사료 생산을 첫 가동하여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였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사료생산본부는 지난 2일과 7일 양일간 안성과 정읍에서 “서부공장 준공 30주년 기념 어울림 한마음 축제” 행사를 실시하였다. 위 행사는 팜스코 임직원 및 협력업체가 모여 목표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본 행사에서 사료생산본부장 안윤식 전무는 ‘팜스코 임직원 모두가 식량안보의 첨병으로서 품질 좋은 사료를 연중 내내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고품질 사료생산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이 후 게임과 퀴즈,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 및 협력업체 모두가 즐겁게 행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품질의 우수성을 자랑하는 (주)팜스코 사료공장 인 중부공장 및 서부공장은 매년 HACCP 심사에서 무결함 HACCP 인증을 받을 정도로 사료 생산에서부터 운송까지 위생과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2년에는 청정지역 제주에서 사료공장을 출범해 제주시장에서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주)팜스코 어울림 한마음 축제는 보다 좋은 품질의 사료를 농가에 공급하자는 슬로건아래에서 모두가 함께 구호를 외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